금남로에서

김 주 정

베오그라드의 꿈, 광주의 꿈

전세계 대학생들의 스포츠·문화축전인 유니버시아드(Universiade) 대회를 주관하는 세계대학스포츠연맹(FISU)의 집행위원인 시니샤 야츠니츠(43·Sinisa Jasnic)는 옛 유고 연방의 종주국인 세르비아 수도 베오그라드 출신이다. FISU 재정담당 집행위원, 유럽대학스포츠연맹 회장이기도 한 그는 지난 1986년 세르비아 노비사드 체육대학 2학년 때 자원봉사자로 참가하면서 FISU와 인연을 맺은 이후 집행위원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2011년 임기를 마감하는 조지 킬리안(George Killian) 연맹회장의 유력한 후계자 중 한 명이기도 하다.

평화의 상징 유니버시아드

야츠니츠가 처음 접한 유니버시아드는 지난 1987년 유고 연방 크로아티아의 수도 자그레브 대회. 비록 TV를 통해 본 대회였지만, 세계 곳곳에서 몰려온 젊은이들의 뜨거운 경쟁과 우정, 대회 이후 자그레브의 눈부신 발달 등은 젊은 대학생의 피를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FISU라는 조직의 가장 낮은 신분인 자원봉사자였지만, 육상과 유도, 농구 등에 능한 만능 스포츠맨은 이때 자신의 고향에서도 유니버시아드 를 개최하고야 말겠다는 꿈을 품었다.

강대국들의 경연장이기도 한 FISU에서 몰락해 버린 제3세계의 맹주, 유고 출신은 그리 주목 받는 존재가 아니었다. 야츠니츠는 특유의 근면성과 친화력으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컸다. 2003년 선거에서 재정담당 집행위원으로 뽑힌 것이다. 마침내 기회가 왔다. 야츠니츠는 2004년 봄 어느 날 베오그라드의 시장 네나드 보그아노비치와 체육부 차관 알렉산드르 소스타를 만났다. "2009년 제25회 유니버시아드를 베오그라드에 유치합시다. 전쟁에 지친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 합니다."

보스니아 무슬림에 대한 '인종 청소'로 세계의 공분(公憤)을 사서 나토군의 공격을 받았던 베오그라드에서 '미니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유니버시아드를 개최하자는 제안이었다. 망설이던 두 사람은 야츠니츠의 열정에 감동해 의기투합했다. 시민들도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1년여 동안 FISU 집행위원들에 대한 야츠니츠의 집요한 설득공작이 이어졌다. 발칸에도 기회를 달라는 간절한 호소는 세계의 화약고에 평화의 씨앗을 심어 보자는 대의명분으로 승화된다.

2005년 1월 10일. FISU 집행위원회는 베오그라드를 2009년 대회 개최지로 결정했다. 국제사회에서 전범(戰犯) 취급을 받던 나라의 수도가 개최권을 따낸 것은 60년 FISU 역사상 처음이었다. 좌절에 빠진 고향을 살리겠다는 한 젊은이의 꿈이 이뤄지던 순간이기도 했다.

지난 5월 '2013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에 실패한 광주시가 '2015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에 재도전하는 문제를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유니버시아드를 민주·인권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와 투자유치의 기회로 삼자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번 유치 실패에 대한 반성과 시민적 합의 등 추진과정을 문제삼는 지적도 많지만, 유치 자체에 대한 반대는 아닌 듯하다. 기업인, 예술인, 대학 관계자 등의 잇단 유치 촉구 성명이 이를 뒷받침한다.

관건은 시민 공감대 형성

그럼에도, 아쉬운 대목이 있다. 젊은이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실업률 전국 1위의 도시여서 취업 준비에만 바쁜 것일까. 광주학생독립운동, 5·18 광주항쟁 등 한국 근현대사의 주요 고비마다 행동으로 보여줬던 광주의 젊은이들이 유독 유니버시아드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다. '항쟁의 도시' 광주를 '인권과 평화의 도시'로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도 말이 없다.

"우리는 유니버시아드를 넘어서 올림픽으로 갑니다." 22년 전 베오그라드의 대학생이 꿨던 꿈이, 광주의 젊은이들에게는 불가능한 것인가.

〈논설위원〉 jjnews@kwangju.co.kr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은펜칼럼

백 강 화

거인의 정원

우리 동네(문흥동) 주변엔 자연과학고(구 광주농고)가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다. 그곳은 내가 이곳으로 이사한 후 10여년 동안, 미안하고도 고맙게도 우리 아이들의 푸른 놀이터이자 내 삶의 여유로운 휴식처가 돼 주었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서 갑자기 학교 한 켠의 너른 논밭에 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하더니 곧이어 초지인 듯한 너른 언덕 위에 무슨 학교 공사가 시작되었다. 이제 좌우 쪽이 모두 잘려 겨우 운동장과 가로수 길 그리고 덩그런 건축물만 남아있다. 그 동안 공짜로 잘 이용한 사람으로서 뭐라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몰락해 가는 농촌의 현실을 보는 것 마냥 큰 아쉬움만은 감출 수가 없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미 좌우가 잘렸는데 이제 몸통마저 자르려는 일들이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바로 수령이 거의 50년 이상 될 듯한 아름드리 메타세쿼이아와 플라타너스 푸른 가로수 길을 없앤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전황으로 보아 필시 없애는 쪽으로 기울일 것만 같다. 땅 주인들이 팔아먹는 데야 일반인이 말릴 수 없는 처지이긴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크기는 많이 줄었지만 학교 운동장은 여전히 동네잔치의 장소이자 주민들의 쉼터이고, 전남대 운동장이 잘 단장되어 시민에게 개방되는 것처럼 학교 운동장들도 폐쇄 공간이 아니 열린 공간일 때야 비로소 그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다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더구나 농고를 계승한 자연과학고라면 자연 자원을 그대로 간직하는 게 학교의 이미지를 유지 발전시키는데 필수 요소일 것이다. 건물만 덜렁한 체 자연환경 하나 없는 곳이 자연과학고라면 조금 우습지 아니한가?

이 일을 지켜보면서 생각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다. 바로 거인과 아이들 이야기이다. 거대한 거인이 사는 거대한 집 담엔 개구멍이 하나 있어 아이들이 매일 드나들고 거인의 정원에서 즐거이 놀았다. 그 아이들의 노는 걸 귀찮다고 생각한 거인은 어느 날 아이들을 모두 내쫓고 개구멍마저 막아 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그 후부터 거인의 집은 도무지 봄이 찾아오지 않고 겨울만 계속되고 거인 또한 심각한 외로움에 시달리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벌어진 담 틈으로 한 순진한 아이가 들어와 노는 걸 거인은 반가운 마음으로 가만히 지켜보았다. 그러자 아이들이 그 아이의 뒤를 따라 하나둘씩 다시 거인의 정원으로 들어와 놀기 시작하니까, 거인의 뜰에 비로써 봄이 찾아오고 새들이 들고 꽃이 피기 시작했다. 그 후 거인은 언제든 아이들이 들어와 놀도록 문을 활짝 개방했다. 물론 거인의 외로움도 말끔히 가셨다.

내가 생각하는 학교란 바로 이 거인의 정원 같은 곳이다. 유년기 적부터 한 시도 학교와 놀이터를 따로 떼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학교 운동장은 우리의 무한 놀이터였고 추억의 덩어리였다. 비록 거인의 소유라지만 그 속의 자연마저 거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 정원의 가치는 여럿이 함께 공유할 때야 더욱 빛을 발한다. 아름다운 추억을 가진 이로서, 거인의 숲이 그대로 몰락하고 그 안의 거인마저 차츰 죽어가는 걸 지켜보는 일만은 없었으면 좋겠다.

〈주부·2005년12월 수상자〉

은펜칼럼은 매월 광주일보 '오피니언'면 기고자중 최우수작에 수여하는 '은펜상'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기고를 싣는 코너 입니다.

기 고

이 지 헌

여름철 불청객 오존의 두 얼굴

무더운 찜통더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는 요즈음 대기오염에 의한 오존(O_3)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오존이 발생하면 실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대기오염에 의해 생성된 오존은 호흡기 질환자나 노약자,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협한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선천성 면역체계를 손상시켜 박테리아 같은 외부침입자의 침입을 쉽게 한다고 한다.

하지만 오존은 이같이 악영향만 끼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이로운 물질이기도 하다.

지표에서 25Km부근인 성층권 내에 오존밀도가 높은 '오존층'을 형성, 태양에서 방출되는 자외선을 차단시켜 지상의 생명체를 보호하고 곡물성장 장애발생 방지를 하고 있다. 특히 인체에 유해한 자외선을 흡수해 백내장, 피부암 유발을 막아준다.

우리 지역에서는 매년 봄, 여름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오존에 의한 오존주의보는 몇 회가 발령될까.

1995년 서울지역에서 최초로 오존경보제를 도입했다. 이후 광주는 1997년, 전남은 2002년 도입, 현재 19개 측정소에서 측정하고 있으며 오존농도에 따라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로 나눠 발령하고 있다. 작년에는 15일 동안 광양, 여수 등에서 22회의 주의보가 발령됐으며 대부분 일사량이 많은 12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 집중 발령되고 있다.

도시지역의 오존은 자동차 및 공장배출가스 등에서 직접 배출되는 것이 아니고 배출된 질소산화물(NO_x)과 휘발성유기물질(VOCs) 등이 강한 태양광선(자외선)에 의한 광화학반응에 의해 높은 기온과 강한 일사량에 의해 생성되며 풍속에 의해 확산되지 않는 분지나 구릉지 형태의 지역에서 오존이 흩어지지 않고 정체돼 자주 발생한다.

성층권의 오존은 화학적으로 매우 안전해 대기 중에서 파괴되지 않고 오존층을 형성한다. 하지만 이 오존을 염화불화탄소(CFC : 프레온가스)가 파괴한다. 오존층 1% 감소는 자외선 투과율을 2% 증가시키며 이는 10만명에게 피부암을 발생시킨다고 한다.

프레온가스를 줄이기 위해 1987년 몬트리올의정서가 채택됐다. 현재는 2010년 목표치의 95% 이상을 달성해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국제협약으로 들 수 있다.

우리 지역에서는 오존 등 대기오염물질은 알리는 전광판을 광주, 여수, 광양에 설치되어 있고 순천에 설치 중에 있어 오존발령 시에는 관내 주민에게 신속히 전파해 어린이,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의 외출 자제와 대중교통 이용을 요청하고 있다.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운동이나 모임에 참석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일상생활에서 에어컨 덜 켜기,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수단 이용하기, 생각 바꾸기, 적극적인 소비줄이기 등의 가치를 인식하고 실천에 옮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남도 보건환경연 환경조사과장〉

신용카드 수수료율 낮춰 영세상인 숨통 터 줘야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다. 소규모 영세업자들은 죽을 지경이다. 여기에 신용카드 수수료율마저 높아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신용카드 수수료율 조정이 절실하다.

대형 할인점들과 대기업은 카드 수수료 0.1%를 가지고 신용카드 사용 여부를 가지고 힘겨루기를 한다. 연 매출액이 몇 백억씩 되는 기업들이 이 정도인데, 겨우 몇 백만원 안팎인 영세업자들은 어떻겠는가.

영세업자들이 카드회사에 내는 수수료는 평균 3.1%에 달하며 최고 4.7%까지다. 지난해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경기 침체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추가 인하가 절실하다.

카드회사들은 정부의 카드 사용 권장으로 이익을 보고 있지만 영세 상인들은 그로 인해 더 쪼들린다. 영세업자들이 죽으면 지역 상권이 죽고, 그렇게 되면 국가 경제도 흔들리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란다.

▲최계숙·광주시 남구 원산동

친환경 장묘 '수목장' 되레 산림 파괴해서야

묘지로 인한 국토파괴가 오래전부터 문제됐다. 그래서인지 시민의식이 깨어 요즘에는 묘지 대신 화장과 납골묘를 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

나무 밑에 납골을 안치해 모시는 수목장도 늘고 있는 추세다.

수목장은 봉분이 없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장묘법이다. 고인을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는 상징물로 나무가 있으니 그 의미도 남다르다.

또 나무가 거목이 될 때까지 지켜보면서 가꾸게 돼 산림보호와 국토경관에도 기여하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하다는 말이 있듯이 엉뚱하게도 수목장이 되레 산림 훼손을 부채질하고 있다. 장묘업체들이 유가족의 성묘 장소를 만들기 위해 그 주변의 숲을 마구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또 각종 석물을 설치하기 위해 함부로 벌목하는 예도 있다.

친환경적인 장묘제도라는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아무리 산 주인이 자기 땅이라고 해도 단지 주변의 성묘 장소를 마련한다는 것을 빌미로 그렇게 마구 파헤치고 나무들을 베어낸다면 수목장은 안하느니만도 못하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들어 개인 소유의 땅이라도 매장이나 비석 설치 등을 규제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고, 시민들 역시 수목장 본래의 취지를 살려 함부로 주변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삼가야 한다.

▲조한나·광주시 북구 문흥동

사 설

'죽음의 바다' 영산강 하구 방치할 건가

바다 오염에 대한 미국 해양과학협회의 연구 결과는 인류에게 심각한 경고라 할 수 있다. 해양과학협회는 '사이언스' 최신호를 통해 영산강 하구언 앞바다에서 경남 진해만에 이르는 남해안 일대가 산소의 고갈로 생물이 죽어가는 '죽음의 바다'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반도에 국한된 현상은 아니다. 동중국해, 일본 태평양 연안, 홍콩·타이베이 근해 등 동북아시아 바다와 발트해, 멕시코만 등 전 세계 405개 바다가 '죽음의 바다'로 변하고 있다고 한다. 1960년대 이후 10년마다 2배씩 늘어 현재 뉴질랜드 크기에 이른다는 것이다.

우리의 입장에서 주목되는 것은 영산강 하구언이다. 하구언 앞바다 바닥의 용존산소량이 1㎎/L 이하에 불과할 만큼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질소비료와 농약 등 화학물질이 섞인 강물이 바다로 흘러들어 부영양화 현상을 초래하고 이 과정에서 산소가 고갈돼 생물이 살 수 없게 된 것이다.

주된 원인은 지난 1981년 축조된 영산강 하구둑이다. 하구둑 완공 이후 강물과 바닷물이 순환되지 못하고 있고 바닥에는 퇴적물이 수북이 쌓이고 있다. 하구언 일대의 영산강 물은 농업용수는 물론 공업용수로도 쓰기 어려울 만큼 심하게 오염돼 있다. 사실상 무산소 상태의 '죽음의 바다'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전남도가 영산호 하구둑 일부를 터 강물을 흘려보내고 하구언의 퇴적물을 준설해 수질오염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진척은 없다. 영산강의 바닥을 정비해 배가 다닐 수 있게 하려는 '뱃길 복원사업'도 '한반도 대운하'의 벽에 막혀 있다.

영산강 하구언의 오염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환경오염은 생태계 전반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부를 수 있다. 정부와 전남도는 생태환경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부터 벌여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첨단의료단지 '호남 유치' 총력전 나서라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한 광주시와 전남도의 공동전략이 마련됐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정부의 광역경제권 개발 정책에 대응하고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를 공동 유치키로 했다.

유치전략에는 광주와 전남, 전북이 포함돼 있다. 광주에는 노화의료기기 산업단지와 노화의료산업 지원시설 등을 집적화하고 전남과 전북에는 의료서비스, 신약개발, 의료관광, 건강식품 등 의료 기능별 단지를 조성해 특화한다는 것이다. 유치에 성공하면 호남은 동북아의 '의료 허브'로 거듭나게 된다.

여건은 충분하다. 광주에는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등 의료서비스 시설이 풍부하고 광(光)전자·금형 등 첨단산업이 발달돼 의료기기 산업과 연계발전할 수 있다. 전남과 전북에는 화순 녹십자 백신공장 등 신약·제약산업 기반과 동신대 및 원광대 한의과 등 의료 연구 인프라가 확충돼 있다.

문제는 치열한 유치 경쟁이다. 인천 송도와 강원 원주, 충북 오송, 부산 등 10여개 자치단체가 경쟁하고 있다. 대구·경북과 대전·충북 등은 이미 권역별 연합체제를 구축해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광주와 전남이 합의했다지만 전북과의 공조 여부도 불투명하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오는 2037년까지 5조6천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파급효과가 큰만큼 정치적 판단에 따라 후보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있다. 의료연구개발 기관과 산업, 의료인력 등 입지 선정기준에서 광주·전남이 다른 시·도보다 우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시일은 촉박하다. 후보지는 올 하반기에 결정된다. 의료기반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현실에서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첨단의료복합단지는 호남권에 유치돼야 한다. 광주시, 전남도, 전북도가 확실한 공조체제로 치밀한 전략을 마련해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길 바란다.

無 等 鼓

인재 유출 방지

후한 말 유비는 쓰러져 가는 한나라를 재건하기 위해 인재 구하기에 나섰다. 수소문 끝에 제갈량의 존재를 알아냈고 그를 얻기 위해 누추한 초가를 세 번이나 찾아가 결국 마음을 얻기에 이른다. 그 유명한 삼고초려(三顧草廬)의 유래다.

인재 육성(영입)이 중요한 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인재론'을 거론할 때면 으레 삼성그룹 이건희 전 회장을 떠올리게 된다. "천재 한 사람이 천 명, 만 명을 먹여 살린다", "경영에 있어서 1년, 10년 후를 생각하면 한 겨울에도 식은 땀이 난다" 등. 국가나 기업 경영에 있어서 인재 육성만큼, 그리고 그런 인재들을 통한 창조적 아이디어를 얻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얘기에 다름 아니다.

요즘 전남지역 시·군이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는 모양이다. 꽤 많은 학자금에 해외연수 등 파격 지원을 하면서 지역 내 우수 학생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고 있다. 그러나 '우수 학생 빼가기'에 대한 비난 여론이나 '다른 지역으로 진학할 경우 장학금 회수' 등 내용의 각서 파동도 일고 있다.

목포시는 타지 우수 학생 유치를 위해 학자금 외에 매달 생활비로 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신안군과 강진군, 완도군은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나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관내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을 경우 반납토록 하는 각서를 받고 있다. 구례군은 관내 고교 출신 중 서울대 진학생에게만 장학금을 주고 있다.

"자기만 살자고 인근지역 우수 학생을 빼가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각서까지 받는 것은 너무 심하다" "서울대만 우수대학이냐" 등 불만의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열악한 교육환경, 우수 학생 유출 방지를 위한 고육지책이 안쓰럽기까지 하다.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인재 육성의 의미를 살려 성공을 거두길 기대한다.

/김우성 정치부장 wskim@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晧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禛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사회2부	2200-619	경영지원국	2200-511
〈대표FAX	222-4918〉	〈FAX	227-0118〉	〈FAX	222-8005〉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고마케팅국	2200-521
정치부	2200-616	여론매체부	2200-628	〈FAX	227-9500〉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디자인	2200-536
사회1부	2200-618	사진부	2200-690		
〈FAX	222-4267〉	조사부	2200-570		

문화홍보국	2200-541
〈FAX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